

현대건설 6년 만에 1위 복귀, 10대 건설사는 순위 바꿈만

- 2009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경영안정 달성 업체의 약진 두드러져 -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1,51개 종합건설업체의 2009년도 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 현대건설이 9조 2,088억원으로 1위, 삼성물산이 8조 7,311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8조 2,571억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현대건설이 6년 만에 다시 1위로 복귀하였다.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8위를 유지했고, 타이세이건설(9위)과 SK건설(10위)은 순위를 바꿨다. 결국 10대 건설사에서 현대건설과 타이세이만 순위를 올렸을 뿐 새로운 진입이나 탈락은 없었다.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동부건설이 지난해 22위에서 18위로, 한라건설이 29위에서 27위로 뛰어올랐고서 희건설과 STX건설, 반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신안등도 순위를 크게 올렸다.

토목은 현대건설, 건축은 삼성물산이 수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 평가액, 경영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공사 실적의 75%로 산정되며, 경영평가액은 경영상태를 감안한 건설부문 실질 자본금의 90%가 인정된다. 그리고 기술능력 평가액은 기술자 1인당 생산액을 가공하여 산출된 기술 능력 생산액을 기술 개발 투자비, 퇴직공제불입금을 더해 산정된다. 이 중 실적 평가액에서는 삼성물산이 4조 1,081억원, 경영 평가액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3조 2,509억원, 기술 평가액에서는 현대건설이 1조 6,884억원으로 각각 요소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시공 능력은 전문 분야별로도 공시되는데 토목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현대건설이 6조 2,548억원, 건축부문은 삼성물산이 7조 7,821억원, 산업·환경설비 부문에서는 GS건설이 6조 4,368억원, 조경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1조 5,541억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실적 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공사 실적을 공종별로 보면 토목 공종에서는 2008년 현대건설이 2조 2,471억원으로 1위, 대우건설이 1조 6,441억원으로 2위, 삼성물산이 1조 3,591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토목 공종 중에서 댐은 대림산업, 항만은 한진중공업, 상·하수도는 대우건설이 1위를 차지하였다. 건축은 삼성물산 4조 9,701억원, 현대건설 4조 2,861억원, GS건설 4조 2,381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건축 공종 중에서 주거용건물은 GS건설, 상업용건물은 롯데건설이 가장 실적이 많았다. 토목건축합산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6조 5,341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산업·환경설비는 두산중공업이 3조 4,331억원으로 1위, GS건설과 삼

6년 만에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에 복귀한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의 해외 시찰 장면.

성엔지니어링이 각각 2, 3위를 기록하였다.

종합업체 전체 기술자 수 17만 4,56명

또한 기술능력 생산액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보유 기술자 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3,58명, 대우건설이 3,50명, GS건설이 3,21명, 삼성물산이 3,19명, 대림산업이 2,50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 보유 전체 건설 기술자 수는 17만 4,56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영 안정 달성 업체의 약진 두드러져

2009년 시공능력평가의 종합적 특징으로 공사 실적의 꾸준한 증가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 증가 등 경영안정을 달성한 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직면한 기업의 순위가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서 시공능력이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평가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현황

(단위: 억원)

2009년 순위	업체명	토건 · 시공 능력평가액	순위 변동
1	현대건설(주)	9조 2,088억	2
2	삼성물산(주)	8조 7,317억	-
3	(주)대우건설	8조 2,577억	↓ 2
4	지에스건설(주)	8조 1,368억	-
5	대림산업(주)	6조 2,497억	-
6	(주)포스코건설	5조 5,308억	-
7	현대산업개발(주)	5조 3,648억	-
8	롯데건설(주)	5조 2,528억	-
9	타이세이건설(주)	3조 7,577억	1
10	에스케이건설(주)	3조 3,388억	↓ 1
11	두산건설(주)	2조 5,688억	-
12	금호산업(주)	2조 3,828억	1
13	(주)한화건설	2조 3,428억	↓ 1
14	(주)한진중공업	2조 1,608억	1
15	두산중공업(주)	2조 1,398억	↓ 1
16	쌍용건설(주)	1조 8,638억	-
17	경남기업(주)	1조 6,718억	-
18	동부건설(주)	1조 6,088억	4
19	코오롱건설(주)	1조 5,738억	↓ 1
20	(주)엠코	1조 5,448억	3
21	계룡건설산업(주)	1조 5,028억	-
22	한라건설(주)	1조 4,498억	7
23	(주)태영건설	1조 4,208억	1
24	삼환기업(주)	1조 4,078억	↓ 4
25	풍림산업(주)	1조 3,838억	↓ 6
26	벽산건설(주)	1조 2,808억	↓ 1
27	삼성엔지니어링(주)	1조 2,418억	1
28	한신공업(주)	1조 1,768억	↓ 2
29	(주)케이씨씨건설	1조 1,128억	1
30	삼성중공업(주)	1조 793억	1
31	신동아건설(주)	1조 445억	2
32	현대중공업(주)	1조 330억	6
33	고려개발(주)	1조 270억	↓ 6
34	극동건설(주)	9,578억	-
35	남양건설(주)	9,248억	1
36	삼부토건(주)	9,188억	↓ 4
37	(주)현진	8,538억	6
38	남광토건(주)	8,378억	↓ 1
39	한일건설(주)	8,288억	↓ 4
40	진흥기업(주)	7,788억	2
41	(주)한양	7,598억	7
42	임광토건(주)	7,398억	5
43	(주)서희건설	7,248억	10
44	(주)동양건설산업	7,218억	2
45	신세계건설(주)	7,078억	↓ 6
46	금광기업(주)	6,998억	↓ 1
47	(주)삼호	6,798억	↓ 3
48	대우자동차판매(주)	6,358억	2
49	화성산업(주)	6,208억	-
50	에스티엑스건설(주)	5,998억	64

2009년 순위	업체명	토건 · 시공 능력평가액	순위 변동
51	삼성엔지니어링(주)	5,618억	4
52	신성건설(주)	5,448억	↓ 11
53	(주)반도건설	5,248억	16
54	우림건설(주)	5,108억	↓ 14
55	(주)서해종합건설	4,858억	↓ 1
56	(주)대우엔지니어링	4,848억	7
57	우미건설(주)	4,688억	2
58	성원건설(주)	4,618억	2
59	(주)중앙건설	4,488억	2
60	(주)부영	4,108억	↓ 2
61	현대엔지니어링(주)	4,038억	36
62	(주)우남건설	3,958억	11
63	울트라건설(주)	3,868억	4
64	(주)케이알산업	3,818억	14
65	(주)동일토건	3,788억	6
66	엘아이지건설(주)	3,758억	6
67	한국전력기술(주)	3,638억	16
68	(주)홍화	3,568억	↓ 2
69	성지건설(주)	3,548억	↓ 4
70	(주)신안	3,538억	74
71	(주)제일건설	3,528억	22
72	한림건설(주)	3,468억	47
73	범양건설(주)	3,458억	↓ 3
74	(주)신일건설	3,448억	8
75	대주건설(주)	3,438억	↓ 23
76	신안종합건설	3,428억	↓ 1
77	(주)호반건설	3,398억	-
78	씨제이건설(주)	3,358억	40
79	(주)후지타	3,288억	29
80	월드건설(주)	3,188억	↓ 29
81	일성건설(주)	3,108억	-
82	이수건설(주)	3,058억	↓ 18
83	에이스종합건설(주)	3,028억	19
84	(주)대원	2,948억	↓ 16
85	(주)신도종합건설	2,928억	16
86	(주)동원개발	2,858억	8
87	일신건설(주)	2,838억	↓ 2
88	선원건설(주)	2,818억	42
89	(주)효성	2,778억	7
90	대성산업(주)	2,708억	2
91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698억	38
92	(주)영조주택	2,678억	62
93	(주)씨엔오방	2,668억	↓ 31
94	동원시스템즈(주)	2,658억	6
95	동문건설(주)	2,648억	↓ 38
96	(주)삼한캐뮤	2,648억	17
97	한솔건설(주)	2,608억	↓ 13
98	(주)신창건설	2,588억	↓ 8
99	티이씨건설(주)	2,538억	↓ 8
100	양우건설(주)	2,518억	↓ 12

보인다.

먼저 현대건설의 경우 실질 자본금과 기술자수가늘어난데힘입어경영평가액및 기술능력 평가액이 급증했고, 여기에 해외 공사실적이급증하면서6년만에시공능력 평가1위자리에 복귀했다. 50위권이내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는 동부건설과 한라건설, 서희건설, STX건설의급등이시선을끌었다. 동부건설은공사실적및실질자본금이늘어나면서지나해22위에서18위로4계단 올라섰고, 한라건설도실적과유동자산증가로 지나해 29위에서 22위로 7계단 뛰어올랐다. 서희건설도실적과 자본금, 기술자수가고르게늘어나 53위에서43위로올라섰다. 특히 STX건설은해외공사 실적이 급증한 데다 자본금과 기술자 수도 늘어나 지난해 114위에서 올해 50위로 무려 64계단이나순위를끌어올렸다.

50위권 밖에서는 반도건설이 유동 자산 및실질자본금증가에힘입어 69위에서53위로 순위를 올렸고, 현대엔지니어링은공사실적및실질자본금증가로97위에서61위로 36계단뛰어올랐다. 신안은실적과자본금증가로지나해144위에서70위로무려 74계단이나 상승했고, 한림건설도 자본금증가를 바탕으로 119위에서 72위로 4계단 순위를끌어올렸다. 반면워크아웃 대상업체로 분류된 신성건설과 우림건설, 대주건설은 각각 52위(지나해 41위), 54위(지나해 40위), 75위(지나해52위)로떨어졌다.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발주자가적정한건설업자를선정하는데참고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으로공공공사의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와 및 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급금액하한제도 등에 활용되고있다. 

전종구
대한건설협회건설정보실과장

